

요금안내

구 분		광명동굴		광명동굴	통합권(동굴+공룡체험전)	
		일반	광명시민	공룡체험전	일반	광명시민
개인	어린이	2,000	1,000	5,000	6,000	5,500
	청소년	3,500	1,800	7,000	8,500	8,000
	군인	4,000	2,000	7,000	9,000	8,500
	어른	6,000	3,000	10,000	13,000	11,000
단체	어린이	1,700	800	3,500	4,500	4,000
	청소년	3,000	1,500	5,000	6,500	5,500
	군인	3,500	1,800	5,000	7,500	6,000
	어른	5,000	2,500	7,000	9,500	8,000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7호선 철산역 / KTX광명역에서 17번 버스→광명동굴 종점
7호선 철산역 / KTX광명역에서 11~2번 버스→광명동굴 제3주차장
광명시 맞춤형 따복버스(따뜻하고 복된버스) 77번 운행
(옥길동차고지 - KTX광명역 - 광명동굴 종점)

내비게이션 검색

광명동굴 /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주차안내

제1, 2주차장(광명동굴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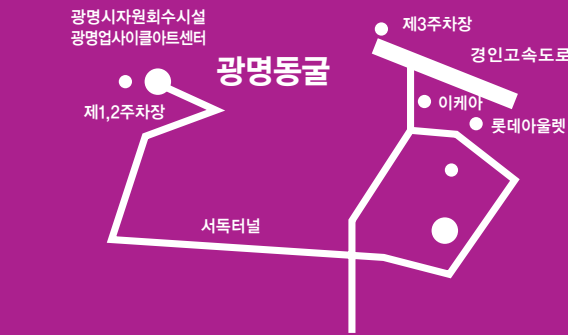
구분	대형	중·소형	경차
이용요금	4,000	3,000	1,500

제3주차장(소하동 군부대 정문) : 최초 30분까지 600원, 초과 10분마다 200원

*광명동굴 입장권, 코끼리차 이용권 소지자는 당일 주차 이용요금 무료

제3매표소 | 070-4288-8910

수유실 및 의무실 | 070-4288-8910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가학동 27번지)

문 의 처 | 070-4277-8902

홈페이지 | www.gm.go.kr/cv

페이스북 | Gwangmyeong Cave

매주 월요일 휴장



상상보다 앞선 즐거움

빛으로의 환상여행!

★**웜홀광장**★ 광명동굴 안에서 4개의 길이 처음 만나는 곳으로 우주 공간의 웜홀처럼 이곳은 동굴 안 여행을 떠나는 출발점이다. 1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감동의 연결고리가 되는 통로다.

★**빛의 공간**★ 어둠 속 아름다운 존재, 빛을 주제로 한 아트프로젝트 공간이다. LED조명과 뉴미디어 기법을 이용한 각종 빛의 작품과 빛의 생명체를 전시하고 있다.

동굴 속 물의 세계!

★**동굴지하호수**★ 지하 2레벨에 위치해 있는 동굴지하호수는 지하암반수로 가득 차 있어 신비의 호수를 연상케 한다.

★**동굴아쿠아월드**★ 동굴 지하에서 나오는 1급 암반수를 이용해 국내 최초로 동굴 아쿠아월드를 운영 중이며, 토종물고기와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물고기를 만나볼 수 있다.

★**황금폭포**★ 동굴 안에 웅장한 소리를 내뿜는 장엄한 황금폭포! 높이 9m, 넓이 8.5m로 분당 1.4t의 폭포수가 떨어지고 있다.

★**먹는 광부샘물**★ 동굴 지하 1레벨에서 나오는 암반수를 이용한 약수터다. 지하 갱도 내에서 깨끗한 물이 귀했던 시절, 광부들의 목마름을 달래주던 물이다. 관람객도 사음할 수 있다.

★**동굴식물원**★ LED조명을 통한 광합성 작용으로 식물이 성장하는 동굴 속 천연식물원이다. 물고기가 있는 수족관에서 분해된 물고기의 배설물과 유기물 등은 물과 함께 식물의 영양분 역할을 한다.

아이사와 함께하는 황금이야기

★**황금길**★ 황금광산의 역사를 담은 40여 미터의 황금길은 음이온도 함께 나와 건강과 행복을 주는 '수복강령'의 길이다.

★**황금패 소망의 벽**★ 자신과 가족의 소망을 적은 황금패를 1년간 걸어두는 소망의 벽이 있다.

★**황금궁전**★ 6개의 거대한 황금기둥과 동굴요정 아이샤가 품고 있는 금괴를 만져보는 체험존이며, 아이샤의 주문(식식 호이호이 호로롱~~~!)을 외면 행운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황금의 방**★ 황금궁전의 동굴요정 '아이샤'가 돌을 두들겨 만든 금을 보관하는 보물상자가 있다. 보물상자에 동전 던지기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쌓인 동전은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희망의 장학금과 도서·벽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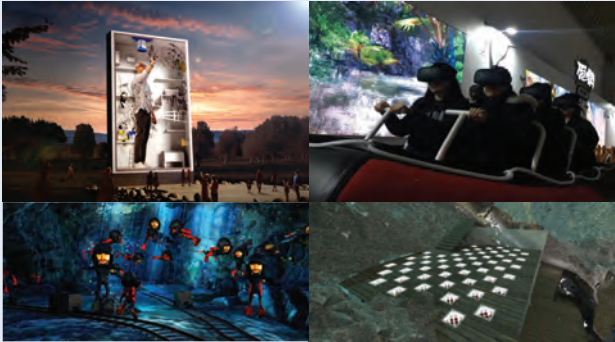
동굴 지하세계탐험

★**광명동굴 공포체험관(귀신의 집)**★ 동굴 지하세계로 내려가면 귀신들의 오싹한 공포퍼레이드를 체험할 수 있다.

★**신비의 용, 동굴의 제왕**★ 신비의 용인 '동굴의 제왕'은 '반지의 제왕'을 만든 뉴질랜드 '웨타워크숍'이 제작한 실물크기 길이 41m, 무게 800kg으로 골룸과 간달프 지팡이와 함께 광명국제판타지 콘서트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황금박쥐 바위**★ 행운을 가져다 주는 황금박쥐 형상의 바위와 함께 3D맵핑을 통한 황금박쥐를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행사로 문화·예술·체험·볼거리 최고!



"가상의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디지털VR광산체험관

광명동굴 과거로의 시간여행~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디지털게임, VR,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통하여 광산을 탐험하는 디지털 광산체험관으로 광차 롤러코스터, 수중탐사 인터랙티브 미디어, 광부체험 VR, 노두바위 등산 시뮬레이터, 광명관광영소 행글라이딩 탑승 콘텐츠를 즐길수 있다.

광명동굴의 새로운 랜드마크 LED 미디어 타워

광명동굴의 우수한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국내 최고 높이의 광명동굴 LED 미디어타워는 최고 수준의 3D입체 영상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추억저장소, 광명동굴 타임캡슐!

광명동굴은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새로운 100년을 기억하기 위해 관광객의 소중한 추억을 저장할수 있도록 ‘타임캐슬’을 마련하였다. 소중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꿈꾸는 신전자 추억의 물품은 일정기간 보관되며 무료로 운영된다.(2018년 상반기 개장)

동굴의 빛, 세상의 빛이 되다!

평화의 소녀상과 입장료 수입 1% 기부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시민 성금으로 광명 평화의 소녀상을 광명동굴 입구 나눔의 집에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의 1%를 지원해 기념관과 호스피스 병원 건립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2017문화민주화 시즌2

'Hello! 바비 광명동굴전' 초청사업
지난해에 이은 이번 문화민주화 시즌2 'Hello! 바비 광명동굴전' 초청사업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통해 꿈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라스코전시관에서 개최된 바비인형전에 전국 66개 시설과 기관에서 2천173명에 달하는 문화소외 청소년을 초청해 문화민주화 사업을 실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선정

2017 한국관광의 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야외에서 즐기는 화덕피자!

광명동굴 숲속에 조성되는 야외체험장에서는 놀이를 통해 광산을 간접 체험하며 동굴의 역사, 광산의 역사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놀이 체험장이다. 광명동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광부도시락과 수제돈가스 등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동굴카페와 화덕피자, 쥬러스 등의 주전부리 음식이 준비된 노천카페가 준비되어있다. 또한, 기념품매장에서는 황금패와 캐릭터 기념품을 판매한다.



코끼리차 아이샤 | 휴내음 나는 도고네 고갯길을 지나 숲속 길 2.3km

• 운행코스 : 소하동 군부대 정문 ⇄ 제2매표소 옆 코끼리차 정류장

• 이용요금(편도) :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 특별기획전시

사라진 공룡박사를 찾아 떠나는 공룡체험전

사라진 공룡 박사의 연구 노트를 따라 공룡 시대로 탐험을 떠나 살아 움직이는 비밀스럽고 환상적인 공룡을 만나게 된다. 지구상에서 사라진 공룡에 관한 학습과 화석발굴체험, 내가 만든 디지털 공룡 X-얼라이브 체험, AR 포토존 마이 디노, 동굴 속 영상관 등의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전시기간 : 2018. 1. 27. ~ 2018. 6. 24.

전시장소 :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



2017-2018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100대 대표관광지



세계가 놀란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

1912년 일제가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광명동굴(구. 시흥광산)은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현장이자 해방 후 근대화·산업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산업유산이다. 1972년 폐광된 후 40여 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이며 잠들어 있던 광명동굴을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하여 문화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광명동굴은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결합된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연간 1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가 놀란 폐광의 기적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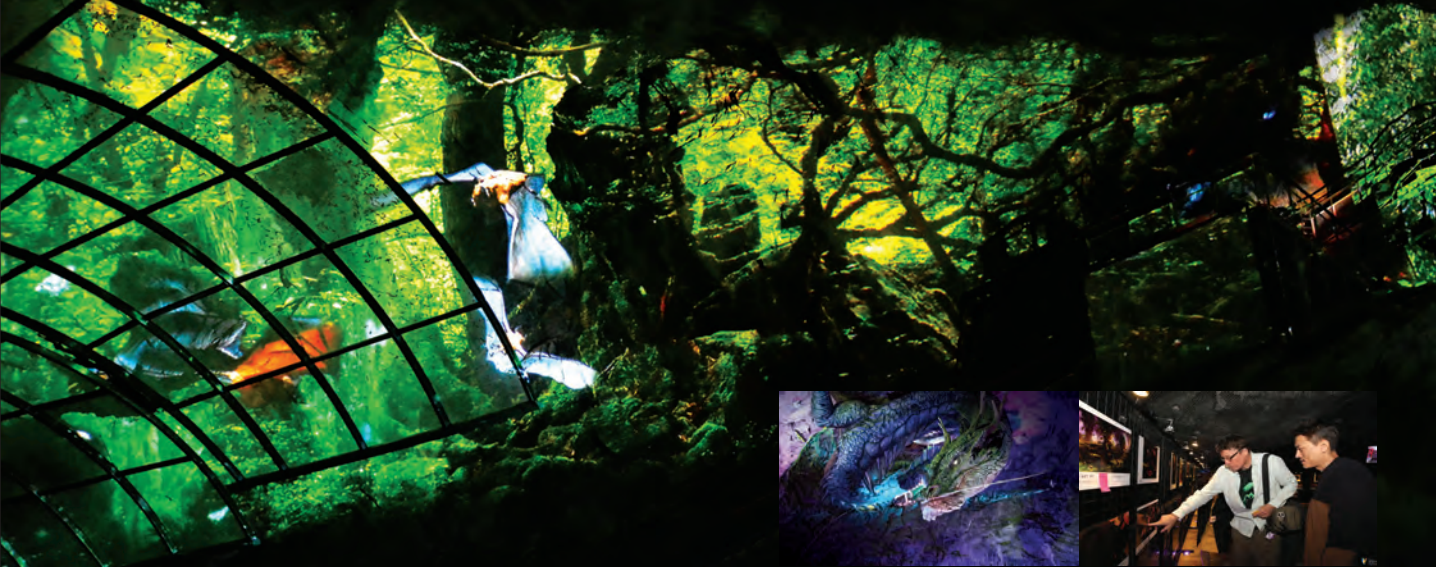
보전과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문화클러스터 메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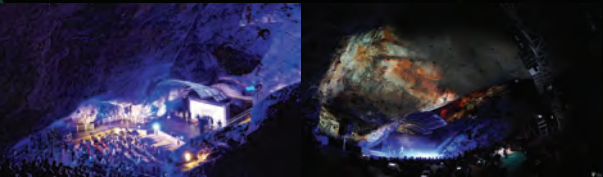
광명시는 폐광에서 대한민국의 동굴테마파크로 변신한 광명동굴과 폐자원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친환경 자원순환을 추구하는 광명시자원회수시설을 가학근린 공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문화클러스터로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창조공간, 광명동굴

동굴이라는 공간적 차별성과 희귀성은 문화예술 콘텐츠와 결합되어 새로운 창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동굴 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동굴 곳곳은 수많은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으며 어둠을 배경으로 한 빛과 뉴미디어는 상상 이상의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첨단미디어를 접목한 광명동굴은 VR(가상현실), 공포체험관, 타임캡슐, 광부체험존, 프랑스 장식미술박물관 컬렉션 바비인형전 등의 국제전시 개최 등으로 한국 100대 대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으로부터 여겨지던 경도는 와인동굴로 변신해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새로운 컬러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등 폐광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시킴으로써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창조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대를 앞선 상상으로 미래를 창조합니다.



예술과 첨단기술의 조화, 동굴 예술의전당
2013년 6월 29일 대한민국 유일의 동굴 예술의전당 개관으로 광명동굴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350석 규모의 동굴 예술의전당은 개관 이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펼쳤으며, 예술과 첨단IT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예술 장르를 선보이고 있다.

문화예술 빛으로 깨어나다!

광명동굴에서는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람객이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이 어우러지고 있다. 동굴 예술의전당에서는 첨단IT기술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미디어파사드쇼와 빛과 레이저쇼, 블랙라이트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이색적인 공연과 볼꽃축제, 광명동굴 여름 쿨쿨(cool cool)축제,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 크리스마스 축제 등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는 문화예술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 개최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은 판타지 콘텐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 한국 판타지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명시가 2014년부터 영화 '반지의 제왕' 제작사인 뉴질랜드 웨타워크숍과 손잡고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판타지 전문 영화제'가 새롭게 도입되어 '반지의 제왕' 확장판, 세계적인 판타지 영화, 판타지 단편영화 본선 진출작이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에서 상영돼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 광명동굴



광명동굴 최초의 기록은 1903년 5월 2일 가학리에 시흥광산이 설립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광업권 침탈차원에서 당시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 고종황제를 압박하며 '광상조사기관'을 설치하고 금·은 광산을 발견해서 이를 독점하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광명동굴 역시 1912년 아이다 큐이치로라는 일본인의 이름으로 광산 설립이 되었고 '광상조사기관'을 앞세운 일제의 광업권 침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광산에는 대부분 농민 출신으로 징용과 생계를 위해 온 광부들이 많았으며 전성기에는 500여 명의 광부가 근무하였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채굴된 광물들은 일본으로 보내져 태평양전쟁의 무기가 되었고 해방 전까지 엄청난 양의 광물이 수탈되었다.



근대산업유산으로서의 보전과 활용

일제강점기의 수탈의 현장이었던 시간과 함께 근대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역사의 순간까지 광명동굴은 105년의 긴 시간 동안 숭한 역사를 써 내려 간 유형의 자산과 무형의 자산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근대산업유산으로서의 보전과 문화예술을 매개체로 도시재생을 위한 활용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로 남고자 한다.

근대산업유산으로서의 선광장

1912년~1972년까지 광명동굴에서 채굴된 광석을 선별하던 곳이다. 현재 기계 시설이 모두 없어진 상태지만 기계를 고정하던 기초석들은 100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당시 산업건축양식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로서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학술자료의 주요한 시설이다.

황금동굴, 동굴에 황금이 묻혀있다



광명동굴은 금광 채광을 시작한 1912년부터 폐광된 1972년까지 수 백 kg 이상의 황금이 채굴되었다. 황금광산으로 개발되었던 광명동굴(구. 시흥광산)은 점차 은, 구리, 아연 같은 다른 광물도 채광하기 시작하였다. 석탄공사 자료에 따르면 1955년부터 폐광된 1972년까지 52kg의 황금을 생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광산 채광을 시작한 1912년부터 1955년까지는 수 백kg 이상의 황금이 채굴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2년 폐광도 홍수에 의한 것이어서 지금도 동굴에는 많은 양의 황금이 묻혀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광산 운영기간 : 1912년 ~ 1972년
채광물질 : 금, 은, 아연, 동 등
경도길이 : 7.8km(개방 2km)
경도층수 : 0레벨~지하 7레벨(총 8레벨)
총 깊이 : 275m



100년 광산역사, 근대역사관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역사 현장인 당시 광부의 노동현장을 재현하고 그래픽, 영상, 음악 등의 복합적인 첨단 연출기법으로 전시하였다. 숨쉬기도 힘든 지하 275m 갱도에서도 노다지를 꿈꿨던 광부들의 삶을 그대로 담은 희망과 탄식의 역사 현장... 시대를 지나 광산에서 근무했던 현존 광부의 생생한 기억을 기록한 인터뷰 영상과 광부들의 절절한 낙서는 100년의 광산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50~60년대, 당시 사진과 영상, 갱도에서 발견된 녹슨 유물을 통해 산업화의 원동력이었던 광명동굴, 광산의 이야기를 관람할 수 있다.

와인과 문화예술이 흐르고 있다.



와인 한 방울 나지 않는 광명시가 광명동굴을 통해 대한민국 와인의 메카가 됐다. 광명동굴의 와인동굴은 연 평균 기온이 12도~13도로 일정해서 와인 저장과 숙성하기 가장 적합하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한국와인팀'을 운영 중이며, 매년 한국와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2015년부터 전국 42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의 60개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국산와인 200여 종을 광명동굴에서 전시·판매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광명동굴에서 판매된 한국와인은 11만 7천여 병으로 한국와인 판매량의 10%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 광명시는 연간 10만 병의 한국와인 판매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또 3월부터 11월까지 광명시와 전국 각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상생장터를 개장한다.



광명동굴 한국와인연구소

한국와인의 메카인 광명동굴 와인연구소는 광명동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 와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한 품질향상 모색,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굴 내 온도, 습도 등 조건에 따른 시음·판매·마케팅연구 등을 통해 도농상생 협력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시민 와인 교실 운영을 통해 국내 와인과 광명동굴 와인산업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연구소와 와인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와인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와인레스토랑 ‘마루 드 까브’

동굴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빈티지 콘셉트의 와인레스토랑으로 가족모임, 연인, 단체모임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와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럽피안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예약제)
이용문의 070-4277-8908